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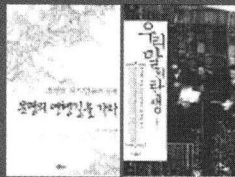
후보도서

《조선의 지식인들과 함께 문명의 연행길을 가다》 김태준·이승수·김일환 지음 | 푸른 역사 | 560쪽 | 값 24,500원

선진 문명과의 조우를 꿈꾼 조선 지식인들의 실크로드, 한국과 중국을 잇는 큰 길이었던 연행로를 인문지리학적으로 재구성한 책이다. 저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학자들이 답사팀을 꾸려 2년여에 걸쳐 다녀온 몇 차례의 연행로 답사의 기록이다. 조선사의 이해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지난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말의 탄생》 최경봉 지음 | 책과함께 | 392쪽 | 값 14,900원

우리말 사전이 만들어지기까지 50년 동안의 길고 험난했던 전 과정을 집중 조명한 책이다. 저자는 직접 발품 팔아 얻어낸 수많은 자료와 사진들을 통해 사전 편찬에 얽힌 사건과 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직후에 이르기까지 민족사의 격동기에 오로지 우리말 사전 편찬 하나에 인생을 건 사람들의 좌절과 고통, 그리고 완성의 기쁨까지. 파란만장한 우리말, 우리글의 탄생기다.



《동아시아의 문화선택, 한류》 백원담 지음 | 펜타그램 | 402쪽 | 값 15,000원

한류는 무엇인가? 책은 그 동안의 한류에 대한 우리사회의 의문점을 인문학적 시각에서 해석하고 이에 대한 명쾌한 답과 비전을 제시한다. 저자는 '한류는 동아시아의 문화교류로 그 성격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류의 이름으로 오히려 피해해지는 한국 문화, 동아시아 각국이 갖는 고유의 문화를 살리면서 한류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공경찾기를 이 책은 시도한다.

《문화부족의 사회, 히피에서 페인까지》 이동연 지음 | 책세상 | 348쪽 | 값 15,000원

히피와 보스 등의 문화부족들, 프리터에서 몸값과 페인 등 소비시대를 영위하는 새로운 주체들까지를 아우르는 다양한 청(소)년문화에 대한 포괄적 분석. 저자는 이를 보는 시각이 기존의 사고나 통념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강조한다. 엄지족, 툴러 등 새롭게 등장하는 수많은 문화부족에 대한 고찰이야말로 이들을 이해하는 수단이라는 말이다.



《슬픔은 흘러야 한다》 문정은 지음 | 즐거움상상 | 254쪽 | 값 1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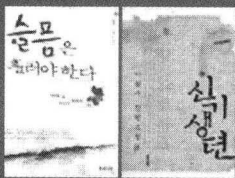
평화운동가인 저자가 이라크에 106일간 체류하며 기록한 이라크, 이라크인, 이라크전쟁의 종전이 선언된 지 일년이 지난 시점부터 약 5개월 간 바그다드와 팔루자, 쿠르드 지역을 오가며 이라크인들의 전후 현실을 글과 사진으로 생생히 담았다. 뉴스에는 보도되지 않았던 이라크 전쟁의 후유증이 거리의 아이들에서, 어른들의 모습에서 가감 없이 느껴진다.

《자연계는 생명의 어울림으로 가득하다》 권오길 지음 | 청년사 | 224쪽 | 값 9,800원

달팽이 박사 로 유명한 저자가 들려주는 우리 자연의 생명 이야기. 인간과 동식물의 삶과 상생을 애정 어린 눈으로 보듬는 시선으로 다채로운 자연계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다. 쉽고 재미있는 글쓰기로 과학의 대중화에 앞장 서 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과학의 길에서 발견한 생명의 신비와 이를 통해 깨닫는 인간의 삶을 51쪽지로 담았다.

《신 기생던》 이현수 지음 | 문학동네 | 256쪽 | 값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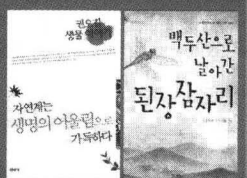
《토란》 《길잡이 여자》의 작가 이현수의 두 번째 장편소설. 2003년 《동서문학》에 '신기생던-부엌어멈 편'을 발표하며 시작된 늙은 기생들의 이야기를 일곱 개의 장으로 구성해 끝을 맺었다. 군산의 기방 '부엌각'을 무대 삼아 펼쳐지는 기생과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작가 특유의 단단하고 웅숭깊은 문장으로 담겨 있다.



《백두산으로 날아간 된장잠자리》

김정환 글 | 박지훈 그림 | 언어세상 | 56쪽 | 값 9,800원

생태 디큐 동화 '오솔길 시리즈 중 첫 번째 책'으로 매년 북녘을 향해 본능적으로 이동하는 된장잠자리 이야기다. 이는 곧, 삶에 충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의 자화상이자,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의 모습을 상징한다. 제주도 혼인지에서 시작해 창녕의 우포늪과 영산강, 한강, 압록강을 거쳐 백두산 천지까지 이르는 된장잠자리의 경로에서 한반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부록으로 잠자리 생태 알아보기와 잠자리 카드가 실려 있다.



《미래파》 권혁웅 지음 | 문학과학사 | 468쪽 | 값 18,000원

부제는 '새로운 시와 시인을 위하여'다. 시인이자 비평가인 권혁웅은 경박하고 상업적이라는 이유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작가와 작품에 주로 천착한다. 독자적인 문체와 어법을 구축한 시인들의 이전 시와 근작들에 대한 현재적인 의미는 1부에서, 이후에는 김수영, 황동규, 기형도 등의 시세계를 들여다보며 한국 시사를 조망하고 키워드를 매개로 좋은 시를 소개한다. 작품론도 함께 실었다.

《괴델과 아인슈타인》 펠레 유에그라우 지음 | 광영직 옮김 | 지호 | 322쪽 | 값 15,000원

연구소 동료이자 산책 동반자로서 말년을 함께한 괴델과 아인슈타인. 책은 이들의 우정을 내밀하게 살펴봄과 동시에 아인슈타인에 비해 알려지지 않았던 괴델의 업적을 속속들이 밝혀내고 있다. 이들의 우정에서 지라난 발견, 이것을 20세기를 지배한 예술과 물리학, 철학, 논리학, 수학 분야에서 태동했던 사조들의 맥락 속에서 탐구한다.

